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단기 4342년 (음력 9월 1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14호 1판 2009년 11월 4일 수요일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조선대학교 http://www.chosun.ac.kr

다문화가정 확 늘었다

광주·전남 이주여성·자녀 2만명 육박

언어·경제적 어려움…사회적 배려 필요

국제 결혼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이 여성들이 꾸리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각각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이주여성을 포함, 광주·전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도 4만5천여 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들 외국인 주민을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언어 및 문화교육과 취업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전남지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은 6천571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지난 2005년 2천342 명에서 2006년 3천537명, 2007년 4천536명, 2008년 5천455명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는 지난 4년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천1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2천17명, 필리핀 1천73명, 일본 595명, 캄보디아 269명, 몽고 145명, 태국 139명 등의 순서였다.

이와 함께 이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숫자도 지난 6월 말 7천499명을 기록, 지난 2005년 이후 4년 만에 갑절 이상 증가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포함 전남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숫자도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현재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모두 3만309명으로, 전남 전체 주민등록인구인 191만5천819명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암의 경우 총 주민등록인구 6만153명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8.4%인 5천59명으로, 전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의 경우 지난 7월 현재 외국인 주민은 1만5천659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142만5천334명의 1.4%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7천887명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가정은 모두 3천267가정으로, 이들 가정의 자녀는 2천393명이었다. 다문화가정은 지난 2007년 2천497명에서 2008년 2천807명으로 증가추세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주민이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가 지난해 말 22개 시·군에서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인 39.9%가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21.2%로 뒤를 이었다. 자녀문제(6.8%)와 한국문화 이해문제(6.2), 취업 문제(4.1), 시부모와의 관계(3.8%), 남편과의 갈등(2.4%) 등도 어려움으로 꼽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주민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학생독립운동 80주년 3일 오전 광주제일고에서 열린 제8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참석한 700여명의 시민들이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앞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신종플루 중앙대책본부 가동

학교 예방접종 1~2주 앞당겨

휴교령은 보류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위기단계를 현행 '경계'(Orange)에서 '심각'(Red)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범정부적 대응태세에 나선다.

〈관련기사 3·6·15면〉

또 군 의료인력을 투입해 학교 예방접종 기간을 당초 6주에서 4~5주로 앞당기고 12월 중 타미플루보다 치료 효과가 좋은 항바이러스 주사제 '페라미비르'(일명 원샷)의 응급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사망사례 및 중증합병증, 항바이러스제 투약, 집단발생 등 신종플루 유행과 관련한 모든 지표가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지역별 대책본부가 4일부터 상시 가동한다. 시도는 지역별 환자예측에 따른 입원병상 및 중환자실 확보 등 의료자원 동원을 위한 행정지원에 주력하고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을 맡는다.

지난 2006년 국가전염병재난단계가 만들어지고 전염병을 이유로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9세 이상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예방접종을 11일 시작해 당초보다 1~2주 앞당겨 12월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휴교령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취하지 않기로 했다.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472개 거점병원의 입원 병상(8천986개)과 중환자 병상(441개)을 활용, 거점병원을 입원중심 기능으로 전환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한 중환자 병상 연결 안내시스템도 가동한다.

소방방재청은 4일부터 민방위 교육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3일 오후 예비군훈련과 장병 휴가, 외출, 외박도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해 발표를 하루 연기했다.

한편 3일 비고위험군 40대 남성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처음으로 숨졌으며, 암을 앓던 71세 남성도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고 사망해 지금까지 신종플루 사망자는 42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호남광역경제권 첫 사업 '전기자동차'

50여개 업체 참여 2012년부터 5개 모델 생산

광주 다목적용, 전남 농업용…1조5천억 효과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에 국내 최대 전기자동차(EV·Electric Vehicle) 글로벌 거점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보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까지 발표함에 따라 호남권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전국 광역경제권 추진사업 중 가장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은 3일 충분한 자동차 산업 인프라를 갖춘 광주와 전남·전북을 중심으로 전기 자동차 완성차 업계 및 핵심부품 생산기업을 발굴·육성, 오는 2012년부터 전기자동차 5개 모델을 본격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관련 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공고해 9월 최종 선정평가를 했으며, 5종의 차량 모델개발을 위해 차량 및 동력·전지 및 제어시스템·차체 및 새시 시스템·냉난방 시스템 관련 관제를 발굴 집중 지원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에 참여할 예정인 주요 기업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탑알앤디 등 전기자동차 업체와 파루 등 농업용 차량 완성차 업체, 코캄·세방전지·뉴모텍 등의 동력·전지 핵심부품 개발업체 등 총 50여 개 업체다.

이 가운데 40개 업체는 이미 과제 선정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업체는 11월 중에 주관 및 참여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이들 업체에 오는 2011년까지 약 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전기버스·근거리용 승용차량·농업용 전기자동차 등 5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광주는 승용 및 다목적 근거리 자동차 부품 소재 연구 및 생산, 전남은 농업용 전기자동차 및 경량 부품 소재 연구 및 생산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전기 자동차가 생산되는 2012년 이후에는 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매출 1조5천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원단은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